

# 광양만청 ‘세풍산단 무리수’

### 사업비 3775억원 PF 통해 조달...광양시에 보증 요구

### 1년 이자만 145억원...문제 발생시 지자체가 부담 떠안아

### 광양시 “불가”- 광양만청 “시가 소극적”...기관간 갈등 양상

오는 2020년까지 한시조직원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세 풍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채무보증까지 하며 자금 조달에 나선데 이어 광양시에 보증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주민 보상설명회와 보상계획공고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금융권이 뒤늦게 광양시의 추가 보증을 조건으로 내걸 었기 때문이다.

광양만청의 허술한 개발 행정에 비판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 금리가 상승하거나 산단 조성 시기 연기 또는

무산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 도 커지고 있다.

27일 광양만청에 따르면 오는 2019년 까지 모두 52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 0㎢ 면적의 세풍산단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3775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225억원이 지난해 7월 조합의결을 거쳐 950억원에 대해 광양만 청이 채무보증하는 조건으로 조달했으며, 금리 6.5%였다. 또 미래에셋생명(주) 가 광양만청의 채무보증으로 1250억원 을 조달하고,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과 한 국산업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자금 회수를 보장받고, 책임은 광양만청이 지는 구조다.

광양만청은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물론 조합 규약에도 없는 채무보증을 선 것으 로 파악됐다.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의 문제로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면 조합 에 참여한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채무 보증을 선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저금리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역 시 나주 혁신산단(4.3%)이나 동함평산 단(4.25%)보다 2% 이상 높아 2225억원 에 대한 1년 이자부담만 145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조달을 책임 진 미래에셋생명(주)은 최근 광양만청 에 공문을 보내 광양시의 선순위 이자보 증 또는 산업용지 5만평 토지매입 확약

조건을 내걸면서 문제는 복잡하게 꼬였 다.

광양시는 지난해 6월 개정 지방재정 법 시행에 따라 토지매입 확약, 책임분 양 보증, 이자 지급 및 보증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 는데다 심사 없이 집행하면 해당 금액 전체를 교부세에서 삭감하도록 해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광양만청의 요구대로 5만평을 매입할 경우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만청은 “광양 시가 소극적”이라고, 광양시는 “광양만 청이 뒤늦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맞 서 기관 간 갈등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광양시의 이자보 증이나 토지매입 확약이 없을 경우 당초 예상한 6~7%보다 높은 금리로 제2금 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실 정”이라며 토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본적 기준 전남인구 주민등록의 2.5배

(485만명)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첫 인구통계...광주는 50만명 이상 적어

현 인구통계 기준인 주민등록상 거주 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 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남의 인구가 현 재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50만명 이상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27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 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 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 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 없 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인구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 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 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000명)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 만7000명, 11.5%), 경기(586만2000명, 10.8%), 경남(528만명, 9.7%), 전남(485

만59명, 8.9%) 등의 순이었다.

가족관계등록상 가장 적은 인구가 등 록된 곳은 세종시(24만명, 0.4%)였고, 울 산(69만6000명, 1.3%), 제주(76만명, 1. 4%), 광주(95만8000명, 1.8%), 대전(96 만 6000명, 1.8%) 순이었다.

전남은 주민등록상 인구로만 보면 190 만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불 과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보면 2 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엔 반대로 주민등 록상 인구는 147만7517명(2.9%)으로 분 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로는 95만8120 명(1.8%)으로 52만여명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전라, 강원, 충청, 경상 도 등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등록기준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반면 수 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는 반 대 현상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7년 본적이 폐지돼 등록 기준지로 대체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 민이 옛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삼고 있 는 결과물로 풀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장성 청소년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서 ‘나눔’ 배운다

### 장성교육청-희망나무 MOU

### 매년 10여명 해외봉사 파견

### 소외 이웃 지원도 협력키로

장성지역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활동과 함께 매년 캄보디아 광주진 료소 등지에서 펼쳐지는 해외봉사를 통 해 나눔과 봉사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희망나무 (이사장 류한호·대표 정승욱)와 장성교육 지원청(교육장 양연옥)은 27일 다문화 가정 지원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와 연 계한 해외봉사캠프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 로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이웃의 지원협 력체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의 건강 및 문화 적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자원봉사 프로 그램의 운영과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성교육지원청은 올 하반기부 터 매년 1~2회씩 지역 청소년 10여명과 인솔교사를 (사)희망나무가 주관하고 있 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해외봉사 캠프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인 (사)희망나무(대표 정승욱·왼쪽에서 네번째)와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양연옥·왼쪽에서 세번째)은 27일 장성교육지원청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봉사활동 캠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장성지역 청소년들은 캄보디아 광주진 료소에서 의료지원 활동과 방역 및 마을 정화활동,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 치게 된다.

양연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날 업무협약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함양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길러 글로벌 인재로 서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승욱 (사)희망나무 대표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해외봉사캠프를 통해 장성 지역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 견을 버리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한 편 나눔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최원길기자 cki@

## 옛 도청 앞 회화나무 후계목 식재

### 광주시·소모임, 30일 5·18민주광장 소공원서 행사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함께 지킨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의 후 계목이 소공원에 심어진다.

광주시와 ‘도청 앞 회화나무 소모임’은 27일 “지난 2012년 태풍 불라넬 피해로 고사한 옛 도청 앞 회화나무와 유전자기 동일한 후계목을 심는 행사를 5·18민주 광장 내 회화나무 소공원 내에서 30일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전자 검사결과 DNA가 일치해 모계(母系)관계가 확인된 후계목 은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시민이 5년전

회화나무 밑에 지라나는 어린 묘목을 발 견해 관리해 오다가 회화나무 고사 소식 에 기증했다. 이후 ‘도청 앞 회화나무 소 모임’에서 관리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계목 식재는 도청 앞 회화나무의 정신 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읍성 남문에 처음 심어져 광 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에서 도 살아남은 도청 앞 회화나무는 2012년 태풍 불라넬 피해로 고사돼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 /박진표기자 lucky@

### ‘이순신 대교’ 1면에서 계속

박교수는 또 “교량 통제로 교통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하룻사이에 똑딱 차량 통행 결정을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걱정스럽 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광 양·구례)도 이날 “정밀안전진단 및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만의 하나 라도 대교에서 사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가 발주한 이순신대교는 52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 4 월 준공됐다. 시공사는 대립산실(지분 27%), 현대건설(24%), SK건설(16%), 동 광건설(14%), 금광기업(10%), 새천년총 합건설(6%), 남양건설(3%)이다. 여수 묘 도와 광양 중마등을 잇는 국내 최장, 세 계 4번째 현수교(길이 2260m)로 주탑은 세계에서 최고 높이(270m)를 자랑한다.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 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n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 5층 참조은인파
- 4층 한길통증의학과
- 3층 신한은행
-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 수시입출금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받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택카드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주유사점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활산지점 364-7557